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
황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린 약국
reen. Pharmacy
GREEN PHARMACY
(310)504-0600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2단 6개월 \$ 240, 1년 \$480
(12월, 6월 신청가능)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 326-5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310)987-0736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택시 TAXI
(310) 350-9540

코지다운/Cozy Down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비유를 보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길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와 두 탈렌트를 받은 이는 저마다 받은 돈을 활용하여 두 배씩 벌었지요. 반면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렵다는 핑계로 활용하지 않다가 급기야 쫓겨났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님께 받은 탈렌트, 곧 재능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 능력이 다를 뿐이지요.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저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하는 일을 다른 이는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쉽게 하는 일이 나에게는 매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 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얼마만큼 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다음 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 다섯 탈렌트를 받은 사람이나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 모두 하느님의 일꾼임을 명심하며 서로 협력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매일 미사 11월호 -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백삼위 한인성당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주일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짝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2,3,4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견) ●꾸리아 3째주-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2:3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생)이복임 엘리사벳, 이진욱 미카엘
학생 미사	(연)김달윤 토마스 & 김정에 테레사 & 박태숙 카타리나 & 박성숙 마리아 (생)주용자 베로니카, 이정훈 안셀모 & 이유진 대건 안드레아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이범창 & 바울당, 박주현 마리아, 최완옥 세실리아, 권순봉 요안나, 권중호, 리첸들맨, 이종갑 부르노, 이인영 & 최전분, 조의동 & 지초자, 장두천, 이진심 테레사, 홍관 요셉, 연옥영훈, 박영춘 안토니오, 오월봉 테레사, 손금동 스테파노, 최영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생) 박홍룡 요셉, 손석 스테파노, 박인규 요셉, 배운임, 이근모 마리아노 & 이행자 리드비나, 정기은 비오 & 요셉회원들, 이종원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권순길체칠리아 & 고규제 체칠리아, 홍석인 체칠리아, 토동1반 구역원, 문재금 테레사, 임선희 수산나, 김문수 앤드류 & 뉴욕크리스성당요우 & 수녀 & 사제, 한용준 도마 & 한첸마, 백덕순 이사벨 & 백성기 레오, 김형준 요한, 김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 심원택 토마스 사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II. 다양한 의견

현실성 있는 미래 계획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서 중용을 취한 것 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려는 대화를 시작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61.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견들을 존중하면서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 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급속한 변화와 훼손으로 상황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기, 심지어 경제 위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설명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험에 놓인 지역이 있으며, 종말론적인 예언은 차치 하고라도 현재 세계 체제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지구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로 인류가 하느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³⁵⁾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62. 선의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문헌에 신앙의 확신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와 철학분야에서, 창조주의 개념을 단호히 부인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어 종교가 온전한 생태계와 인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종교를 그저 관용되어야 하는 하위 문화쯤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과학과 종교는 각자의 고유한 현실 접근 방식으로, 서로에게 생산적인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35. 요한 바오로 2세, 「교리 교육」, 3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오늘의 성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7	187	215
봉헌	264	264	269
성체	282	282	304
파견	346	346	347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31,10-13,19-20,30-31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 복 하 여 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사 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테살로니카1서(1Thessalonians) 5,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마태오(Matthew)25,14-30<또는 25,14-15,19-21>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미사의 선물 제 11 화 영성체

글: 이영제 요셉 신부 (사목국) 그림: 송현철 안도니오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가 끝나면 영성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양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그것을 보증해줍니다.

먼저 사제는 조용히 '그리스도의 몸(피)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성체와 성혈을 차례로 모십니다.

이 때 신자들은 두 손바닥을 위로 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아멘' 이라 말하며 왼손으로 성체를 받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떠받치는 왼손은 왕이 앉는 옥좌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성함에 담긴 성체를 조금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 하며 성체를 분배합니다.

이 때 신자들은 두 손바닥을 위로 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아멘' 이라 말하며 왼손으로 성체를 받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떠받치는 왼손은 왕이 앉는 옥좌를 상징합니다.

성체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사제가 깊은 절을 하듯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은 후에는 행렬에서 한 두 걸음 나와 경건하게 오른손으로 성체를 영합합니다. 이때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굳이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영성체를 위한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일치를 이루고자 오시는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도들과 같이 저도 성체를 영한 지금, 주님이 제 어둠 속의 빛이 되어 주시고 저에게 어둠을 헤쳐 나가는 용기를 주시어, 마침내 제 마음 속에 유일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영성체 루 기도문' 중에서

평신도 회년

2017.11.19.-2018.11.11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주일인 11월 19일부터 내년 평신도 주일인 2018년 11월 11일까지 1년을 평신도 회년으로 지냅니다. 평신도 회년을 더욱 뜻깊게 지내도록 회년이 무엇이며 평신도 회년을 어떤 정신으로 지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회년의 유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레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습니다.(탈출 23,12 참조)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냈습니다.(탈출 23,11 참조)

이 안식년에는 이웃이나 동족에게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 15,1-2 참조)

회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 맞는 50년째의 해를 말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에는 안식년 규정의 의미가 더욱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레위 25,8-55 참조)

따라서 회년은 거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도록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거룩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회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하고 선언하셨고 이를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실현하셨습니다.

2. 회년의 정신

회년은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회년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영성적 차원을 지닙니다. 평신도 회년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합시다. 이 회년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9,2)는 하느님 말씀과 달리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해, 미워하고 원수진 이웃과는 용서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본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은총의 삶을 사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3. 한국 평신도 회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평신도 회년’을 맞아 새로운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서도록 합시다.)

•기간:2017년 평신도 주일(11월 19일)~2018년 평신도 주일

(11월 11일)

•평신도 회년 살기

1정신운동: 회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

2신심운동: 복녝 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 실천운동

-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
- 회년의 정신을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운동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이웃과의 화해, 가난한 사람 돌봄 등)

내가 받은 한 달렌트에 감사하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달렌트의 비유에서는, 어떤 이가 긴 여행을 떠나면서 평소 신뢰하던 세 중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셋 다 똑같이 나누어 받도록 했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중에게는 다섯 달렌트를, 다른 중에게는 두 달렌트를, 그리고 마지막 중에게는 한 달렌트를 맡기는 식으로 차별을 두었습니다. 한 달렌트를 받은 중은 이러한 주인의 처사에 심사가 뒤들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며 이렇게 통명스레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상했지요. 다른 중들과 비교하여 나만 푸대접받는다며 부아도 났을 것이고, 나도 기회만 주어졌다면 다른 중들 못지않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노라 항변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이 종이 보기에 자신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은 모두 주인 탓입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한 달렌트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과 같을까요? 당시의 화폐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에 따르면 한 달렌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참조: Marvin A. Powell, “Weights and Measures,”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6, 1992) 휴일 등을 제하고 일 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일용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비로소 한 달렌트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건설근로자의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연합뉴스 2017년 4월 3일) 여기에 대입해보면 한 달렌트는 9억 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다섯 달렌트에 비하면야 한 달렌트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달렌트 자체의 가치를 따져보면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엄청난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다섯 달렌트를 받은 다른 중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받아 가진 것의 가치를 찬찬히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주인에게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지 또 주인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진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쌓이고 불행이 시작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중, ‘하느님은 왜 나에게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만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지...’ 하는 생각에 속상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을 다른 잘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자기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한 달렌트는 땅에 묻어둔 채 ‘주님은 나에게 심으시지도 뿌리시지도 않으시네!’라며 불평하는 중인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머릿속만 바꿨다.

날이 좋았다. 뒷산에 가고 싶었다.
 기다리던 영화가 막 개봉해서 보고 싶었다.
 반가운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해 만나고 싶었다.
 마감 넘긴 원고 핑계로 모두 미뤘지만 책상엔
 앉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루였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1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회생을 바친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 미사

- 일시: 11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점심 :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 성당 별 장기자랑
- 장소 : 엘 도라도 팍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스 대 주교님
- 주관 : 성 토마스 천주교회

※행사참여 못하는 분들도 웹사이트에서 공연도 보고 투표도 가능합니다.
 백삼위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http://www.koreanmass.org>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요셉회 11월 정기모임

- 일시 : 11월19일(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마른 대추 판매합니다

11월19일,26일(주일) 매 미사 후에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판매가격 : \$ 20/마른 대추, \$40/대추액기스
- 주최: 백삼위 울뜨레아

◆ 서예반 회원모집.

- 시간 :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유아실
- 월회비 : 30불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다음 주일(23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19 일: * 수제비국 (\$3, 하버/카슨)
* 주일학교: 짜장밥 (5 학년)
- 11월 26일: * 배춧국 (\$3, P.V1,4반)
* 주일학교 : 추수감사절 연휴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경자 김민석 김병조 김상규 김성택 김양금 김원호 김정선 김정아 김정엽 김정희 김종렬 김찬구 김철민 노혜숙 류현옥 민순섬 박광자 박완철 박정자 박정희 배태임 서영주 송재훈 송호창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오영섭 원건희 윤선희 윤희동 이상청 이은록 이일길 이정분 이종필 이형삼 임의웅 전동훈 정연영 조희남 주대중 최동한 최진수 한장환 황철수 익 명	성전헌금	권태만 김병조 김양금 김정선 김정엽 김찬구 김철민 노혜숙 박광자 박완철 박정자 박정희 송호창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오영섭 원건희 윤선희 윤희동 이은록 이일길 이정분 이형삼 주대중 최진수 한장환
	합계:\$7,190		합계 : \$3,310
주일미사헌금 :\$2,793	미사책 판매 이익금 :\$40.60	성물판매금 : \$ 374	감사헌금(하정화 \$100)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1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 (310) 741-0556

◆ 젊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1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 서로 인사 합니다. ☺

☼ 새로 나온 신자 환영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집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 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 남녀 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 매년 정기 공연 및 음악피정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신청 : 허 사도요한 jusawi122@gmail.com
☎(213)923-0898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소공동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양금 안나 11/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1/11(토) 오후6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11/14(화)오후7시30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대우 비오 11/19(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홍광선 요셉/엘리사벳 11/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형정 헬레나 11/11(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	최옥희 테레사 755-8462	김준 방지거 11/17(금)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11/14(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1/18 (토) 6시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 스테파노 11/11(토)오후5시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1(토) 오후6시 성당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2	길희정 스킨라스티카 (213)344-9738	박경주 요아킴 11/17(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추수감사절 야외미사 대체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변복순 베로니카 11/08(수)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회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